

“발달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소중한 사업”



아산재단의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산재단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31개 협력기관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발달장애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재단과 협력기관의 발달장애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직업개발, 가족지원,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자립모델을 제시했다.

아산재단은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통해 발달장애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성과발표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재성 연세대 교수와 정소연 서울여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오승환 울산대 교수와 협력기관인 김경호 희망을심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1부에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모델 확산, 지역 사회 교류 확대,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의 발전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소개됐다. 발달장애 사업을 평가한 최재성 연세대 교수는 “발달장애 지원사업의 성과

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적극적 참여, 협력기관 담당자의 열정과 노력, 재단과 협력기관의 상호 존중 및 신뢰 등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부는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기관의 성장과 변화’를 주제로 정무성 숭실대 교수가 좌장,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와 김미옥 전북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협력기관인 최일선 행복한우리복지관 팀장과 노화정 기장장애인복지관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2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개선,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 향상 등 성장과 변화 사례들이 소개됐다.

3부 종합토론은 이봉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달장애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참여한 6명의 교수들이 사업의 의의와 사업 결과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달장애 지원사업의 자문교수인 이봉주 서울대 교수는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의 과정이었다”며 “이번 발달장애 지원사업의 성과가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 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사업 종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글 편집부